

지난 30여년간 군사문화의 폐단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이 참으로 많으나 그 중 한 가지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여러가지 명분과 기준과 연고에 따라 조직하고 이같은 조직화를 통하여 사회를 통제해온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일자리를 자신의 권익을 즐기고자 협회나 동업자단체 등을 조직하여 대처하는 것을 나누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단체를 결성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여 놓고 이를 절권유지를 위한 방계 단체로 지원·육성하거나 적어도 그만한 단체들을 통하여 국민을 흐울것으로 풀제하여 왔다는 점이다.

정부서 團體 결성 유도

정부가 매달 반상회를 소집하게 하여 각종 지사 학교에 불과하고 이같은 단체들을 통하여 각종 지시를 내리거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의 적절하게 단체장을 인 의사표출을 하게 하여 연론을 조작 또는 혼동하기까지 하여온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다.

민도 혁명, 지역, 학제적
위주로 한 각종 단체 만들기를
를 오락을 하듯 옛날의 즐거움
고 사람 명령만 모이면 손쉽게
게 사고 모임이 많아 조직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하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처럼
조직된 비슷한 단체 상호간에
에도 차별화를 통하여 자기
네만 제일이고 다른 단체는
무시하는 식의 배타적인 태
도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현실을 보면 애당초 회원
간의 친목을 일치지 못하는
표방한 단체들도 나중에는
공익을 내세우거나 단체로서
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그
들이 이해관계를 무리하게

조직화를 통한 사회통제



相現

장에서의 정
상적인 일부
수행을 할 때
있어서도 그
같은 이익집
단의 이해관
계를 우선시
켜 처리하게 되어 公私가 볼
분명해지고 사회통합과 직장
의 건전성이 실현 손상을 입
히게 된다.

더나
너도 나도 둘 헤쳐
이고 빌려줄하고 비어성적인
방식으로 자기네를 요구를
관찰하고자 하고 보니 대릴
이 적화하고 과격한 주장의
로 충돌되어 마침내 국민을
흘낏과 흘낏에 빠뜨리게 한
다. 강점은 차일수록 충실했던
동지요, 온건한 협상을 차일
수록 배반자일 뿐이다.

그리고 조지학을 통한 사회를 제란든지 단체의 힘에 기대어 법률을 조성하고 자녀 이해관계를 관찰하려는 방식은 오늘날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극장으로 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아니라 무환경성이 폐연적인 시장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방법이 혹시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통하는 경우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구조총합마다에서는 받아들여질수 없음이 분명하다.

관찰하여는 경향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 왔다.
자기네 단체만은 국민을 위
하여 아주 중요한 기회를 수
행하고 있으므로 의당 정부
는 재정지원과 세제혜택등을
베풀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
골메뉴중의 하나이다.
확실히 개인이 주장하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큰 복소
리를 낼 수도 있고 떼쓰기에
따라서는 실제로 상당한 당
리를 점으로 부터 염려내
기도 한다. 또한 이같은
은 단체의 구 성원이 되면
각자 자기 직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역
별률에 저출되어 쳐벌발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난 각종 단체들은 세계화과
정에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 오늘
날에도 그 속자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이는 마치 사회기초질서도
모르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날짜 더
불어 살 줄도 모르는 버릇 없
고 고양한 음침방이 어린이

총통으로 임한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은 1단계로 고소득 수준에 절망적 아니 하다.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질병이란 관계의 대립인 불평등과 인구증가로 인해 살과 혼상과 조정과 종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르한 분쟁하결방식이 성에 차지 않고 지루한데라도 강자가 풍족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밤벌벌에 없는 것이다.